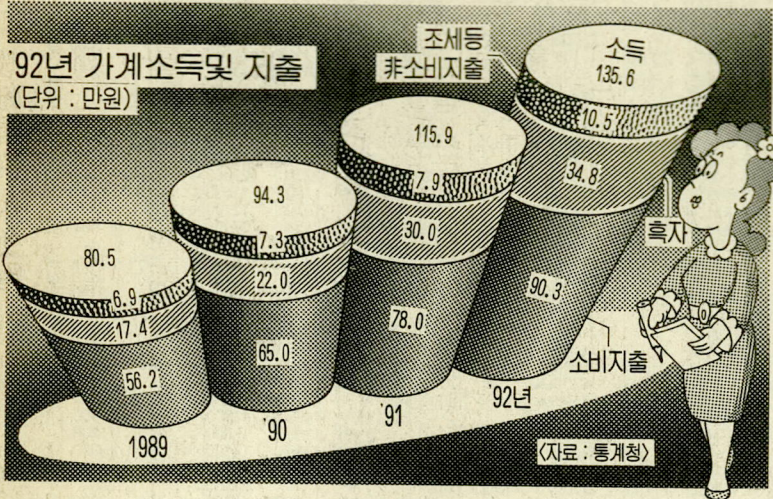


都市근로자 가구 한달 가계부



1년새 소득 20만원 지출 15만원 증가 외식비 크게 늘어 식비의 25%나 차지

소득 百35萬6千원 지출 百萬8千여원

통계청 작년 조사

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35만6천원(지출은 1백만8천8백원으로 가구당 한달에 34만8천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지난 87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 중 가구주(세대주)를 제외한 가구원 소득 비중이 작년에는 취업자를 반영, 5년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. 한편 식료품비 지출 중 외식비의 비중은 지난 85년 4.1%에서 작년엔 24.9%로 경종 뛰어 올랐다.

27일 통계청이 전국 도시 4천5백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「92년도 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」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근로 소득 중 가구주(세대주)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7년 75.1%에서 91년엔 71.6%로 차츰 줄었으나 작년에는 72.7%로 다시 늘어났다. 이는 작년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면서 주로 가구원들의 취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근로자가구 중 소득이 최하위 20%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전체의 8.3%로 85년 7.8%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최상위 20% 계층의 점유율은 37.6%로 지난 85년 40%보다 낮아져

소득분배상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의 비중은 지난 85년 80.3%(엔젤계수)은 지난 85년 3%에서 작년 56.6%로 37.7%에서 작년에는 30.7%로 크게 줄어든 반면 외식비

비중은 4.1%에서 24.9%로 크게 늘었다.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1년 1백15만9천원 대비해 19만7천원(17%) 증가한 1백35만6천원(17%)로 14만9천원(17.3%)씩 각각 늘었다. 한달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은 1백15만7천원으로 전체의 85.3%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자 및 배당 소득 등 기타 소득이다. 작년 가구당 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1백25만1천원으로 1791년 1백7만9천원보다 17만9천원(15.9%) 증가했다. 반면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91년 7만9천원에서 작년 10만5천원으로 2만6천원(32.5%)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소득세의 누진 체계로 소득 증가에 비해 조세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.

이에 따라 올해 지난 2월말까지 건축허가면적은 총 1천7백3만1천평방m(5백15만2천평)로 작년 동기 대비 4.2%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